



생산농가와 연계는 안중에도 없는 수입업자

최 규 칠 사무총장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수입업자 한 사람 때문에 소비사건, 부가세과세 혼란에 이어 화분까지 검역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는 검역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명분과 근거 없는 한 장사꾼 논리에 강력히 대응하여 검역원에서는 더 이상 화분 검역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화분(꽃가루)은 양봉사료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오면서 이제는 양봉농가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어버렸다. 현재 화분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중국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화분을 수입해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문제가 붙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전에는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을 꿀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 시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그간 면세대상 품목으로 수입해 양봉농가들에게 공급해 왔었으나,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판매업자 한 사람 잘못으로 소비사건에 이어 또 양봉업계를 뒤흔드는 큰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최근 일부 세관에서 화분을 부가세대상품목이라고 하여 큰 혼란을 준 사건이다. 만약 이러한 일부 세관의 관행이 계속 되어 수입화분이 부가세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양봉농가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클 것임에 틀림이 없다. 연이은 벌꿀홍작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더해 이러한 소식은 양봉산업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협에서는 양봉농가들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에 더해 한 업자는 화분을 지정 검역물로 지정해 줄 것을 검역원에 요구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화분은 검역을 하지 않고 반입되어 왔고, 현재 양봉농가들이 사용하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만약 화분이 지정검역물로 지정될 경우 배송기간이 약15일정도가 지연되고, 화물 물류비가 약 40~50만원(1퀵당) 높아지는 등 수출국가의 화분 단가도 상승되어 이는 결국 양봉농가로 전가될 것이다.

앞으로 수입업자는 자기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양봉업계와 생산농가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장사에 임해 주길 기대한다.

이처럼 소비와 화분 문제는 우리 양봉농가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협에서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더욱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여 양봉농가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